

화학기업 바이오사업 '뜨다'

- 호성케맥스, 현대석유화학 등 지각변동 예고

국내 화학기업들이 잇따라 바이오사업 강화의지를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 바이오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벤처 붐과 함께 바이오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던 화학기업들은 최근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둘씩 나타내면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유가폭등 등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화학산업계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화학산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바이오업계 침체의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이수화학 등이 그동안 장기계획 아래 더딘 속도로 바이오사업을 진행해온 가운데 올해 바이오육성 구체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어 최근엔 호성케맥스, 현대석유화학 등 화학기업들도 올 하반기 바이오사업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밝히는 등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바이오벤처 붐과 함께 바이오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던 화학기업들은 최근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둘씩 나타내면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LG화학(대표 노기호)은 지난해 LG생명과학을 분사시킴으로써 사실상 바이오·제약사업을 분리한데 이어, 최근엔 CTO(기술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올해 '바이오칩' 사업 강화 계획을 내놨다. LG화학 관계자는 "기존 화학인프라를 이용해 BT(바이오기술)와 NT(나노기술), 재료공학기술을 접목하는 바이오칩 사업이야말로 차세대 기대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화학(대표 윤신박)은 지난 2001년부터 착수하기 시작한 치료용 항체개발과 관련 영국 등 해외기업과의 기술·아이템 교류 등에 관한 꾸준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010년까지 2~3가지 정도의 치료용 항체를 개발할 계획으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파트너를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호성케맥스(대표 최진석)는 자회사인 바이오레인을 통해 올 하반기 말부터 본격적인 바이오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오레인이 개발한 유착방지제 '가디스'(GARDIX)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제조업 승인도 함께 추진 중에 있어 연말쯤에는 생산 및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옛 동성화학 공장부지에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인증작업을 위한 설비보완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현대석유화학(대표 기 준)은 바이오분야 생체적합성 유·무기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석유화학산업 강화책의 일환으로, 이업종간 기술교류를 통한 차세대 고분자소재 기술개발 방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촉매 및 기초공정 기술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유도체를 개발하고 산학연 협력방안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과학신문 이연정기자

